

HANEULMUN NEWS 교회소식

하늘문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늘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양남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같은 교단에 영락교회, 소망교회, 명성교회 등이 있으며, 같은 노회에 온누리교회, 큰빛교회 등이 있습니다.

1. 등록안내 : 하늘문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을 통해 등록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새생명 축제 주일' 선포식을 한 주간 연기하겠습니다. 미리 광고한 것처럼 전도대상자 작성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도대상자를 위해 기도하면서 기록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첫째 주일은 새생명 축제 주일로 지킵니다.
3. 향후 항존직 직분자로 세워질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수집사) 신동기, 오승현 (안수권사) 오효근, 김경미, 이영선, 최윤정, 신경미, 이상 7명입니다. 신임투표일은 12월 10일 주일 낮예배 시간에 가집니다.
4. 올 하반기 세례식은 11월 12일 주일 낮예배 시간에 가집니다. 세례자 교육은 개별 통지합니다. 혹 세례(입교)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담임 목사님에게 알려 주세요.
5. 다음 주일 낮예배 기도 담당은 신동기 집사님입니다. 오후예배는 황희용 권사님입니다.
6. 교우소식 : 오지원(오동호) 집사님이 이번 주간에 출산할 예정입니다. 이준화(배은희) 집사님 가정, 박성대 집사님 가정이 이사할 예정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SERVICE FOR WORSHIP 예배를 위한 섬김

담당 \ 날짜	10월 1일	10월 8일	10월 15일	10월 22일
예배기도(오전)	김운식 집사	권용기 집사	오진석 집사	신동기 집사
예배기도(오후)	.	유숙정 권사	정진숙 권사	황희용 권사
주일식사담당	오효근 권사 조선경 집사 금재구 집사	김민자 집사 최순애 집사 김화현 집사	정진숙 권사 배은희 집사 차미자 집사	김경미 집사 이승미 집사 박진 집사
토요일청소	둘로스목장(10/7)	주사랑목장(10/14)	에덴목장(10/21)	갈렙목장(10/28)

하늘문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제목

1. 하늘문교회 비전 2020을 위해서
2. 남여 선교회와 목장을 위해서
3. 유치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의 교사와 학생들을 위해서
4.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도록
5.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양강암 선교사님(U국)의 선교지와 선교사역을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 부탁 드립니다.

HANEULMUN VISION MESSAGE

하늘문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는 예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교회와 세상 가운데 예수향기로 살게 하며 하늘과 세상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늘문 교회 비전

- *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 * 사랑으로 하나된 행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되심으로 다툼과 분열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 다음세대를 향한 꿈을 디자인하는 교회
신앙의 대를 잇도록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며 더 큰 비전을 품고서 세계를 꿈꾸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지역사회를 섬기며 문화를 이끌어 가는 교회
예향카페, 미니도서관, 문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화를 공유하며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을 품고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향합니다.

■ 찾아오시는 길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문의전화 : 031-595-1534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구암리 427번지

http://www.haneulmun.com



HANEULMUN'S Happiness

하늘문교회 행복초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삶의 행복을 찾도록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허영진
Pastor Young Jin Hur

오전 11:00

인도 : 허영진 목사

예배로 나아감

*예배로 부름	인도자
*성서교독	다같이
*경배찬송	다같이
*참회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다같이

찬양과 기도

찬송	다같이
대표기도	오진석 집사

봉헌과 말씀

성경봉독	인도자
자녀를 위한 기도	허영진 목사
봉헌기도	인도자
말씀선포	허영진 목사

친교와 축복

교회소식	다같이
*결단송	다같이
*축도	허영진 목사

(*는 일어섭니다)

이달의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 14장 27절

◆헌금은 들어오시기 전, 준비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1:30

인도 : 허영진 목사

경배와 찬양	다같이
묵상기도	다같이
찬송	다같이
기도	정진숙 권사
특별찬양	누구든지
성경봉독	다같이
말씀선포	허영진 목사
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찬송	다같이
축도	허영진 목사

WEEKLY WORSHIP 주중예배

수요예배 저녁 7:30 요한복음 강해 허영진 목사

요 15:21-29 '진리를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금요기도회 저녁 9:00 기도를 논하다 허영진 목사

마 26:36-46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2)

새벽기도회 새벽 5:30 시편 묵상 허영진 목사

(월~금) 시 50:1-15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1)-(5)

◆우리는 온 맘 다해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라’

다시금 가을이다. 그런데 이 표현을 하기가 무색할 정도로 파주 산간지역에는 벌써 얼음이 얼었다. 세월의 흐름은 빠른데 비해, 삶의 무게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하는 것 같아 때론 곤혹스럽다. 세월이 그렇게 사람 힘으로는 앞당기거나 늦출 수 없는 창조주의 섭리에 따르다 보니 자연스레 기쁨도 회한도 연속해서 일어나는가 보다. 참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렸다. 아니, 정확히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몸이 불편하지 않는 다음에야 몸이 편하면 마음도 편하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자꾸만 몸 아끼고 도사리는 버릇이 늘어만 가는 것 같아 낭패다.

이곳에 교회를 이전하고서 터를 잡은 지도 벌써 한 해가 지났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다 살아보았으니 4계절에 대한 호불호가 분명해졌다. 그 가운데 낙엽 뒹구는 가을은 참 좋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으면 혹한의 겨울이 찾아 올 것이다. 무척이나 추위에 약한데다 잠자리가 교회 강단이다 보니 겨울이 오기도 전에 겁이 더러 나기도 한다. 이젠 이골이 날 만도 한데 그러니 참 연약하다. 그러나 어찌랴! 이미 그렇게 하기로 결단했으니 무를 수는 없겠고, 단지 앞으로 나아갈 뿐이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뜻의 근묵자흑(近墨者黑)이라는 말이 있다. 비단 나쁜 것에만 적용되는 말은 아닐 게다. 믿음도 같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진 그대로 갇아주신다는 능력의 말씀을 들려준다(민 14:27~28).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한 치도 틀림없는 말씀이다. 그러니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부담스럽고 조금은 힘겨운 삶의 여정일지라도 ‘믿음 안에서 제대로 사는 길은 가끔 좁고 험하고 가시덩굴에 덮여 있는 수가 있다.’고 대답하면 어떨까.

Written by 허영진